

『율리시스』에서의 물의 이미지를 통한 주류 담론 전복의 변증법

이 영 심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율리시스』(*Ulysses*)는, ‘1904년 6월 16일’이라는 단 하루라는 시간과 ‘더블린’(Dublin)이라는 한정된 공간 속에, 다양한 장르들과 이질적인 문체, 그리고 다채로운 서술 기법들을 포섭하여 응축시킨다. 또한 제국주의, (탈)식민주의, 국수주의, 민족주의, 반유대주의, 가부장주의, 그리고 페미니즘에 이르기까지 조이스가 살던 시대의 모든 문제적 담론들을 텍스트 안으로 끌어 들인다.

『율리시스』가 이렇게 다양한 서술기법과 문체들을 포섭하고, 상반된 이데올로기들을 수용하는 방대한 스펙트럼을 보여줄 수 있는 원동력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의미를 단일하게 고정시키는 것을 거부하는 조이스의 변증법적 서술전략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서사적 권위 대신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문체들을 제시하는”(Lawrence, *The Odyssey* 10) 조이스의 서술 전략은 “항상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물의 이미지”와 잘 부합한다. 사실, 패트릭 파린더(Patric Parrinder)가 『율리시스』를 “물에 관한 시”(192)라고 부를 정도로 『율리시스』에서는 “물”(water)에 대한 언급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물”이나 물의 합성어, 그리고 물과 관련된 파생어는 200번이 넘게 반복적으로 사용된다.¹⁾ 고여 있는 물은 부패되어 새

로운 생명을 키워낼 수 없는 것처럼, 단일한 서사와 서술은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과 인물들의 다양한 의식을 반영하는데 있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물은 끊임없이 유동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형태가 고정되는 않고 어떤 용기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정성을 거부하고 자신을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변증법의 핵심은 바로 물의 특징이자, 조이스의 서술 전략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물이 무채색인 투명한 색을 유지하고 있지만, 어떤 물질을 용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맛과 색이 바뀔 수 있는 것과 같이, “세상과 자신을 규정하는 방식은” 단일한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존재”하며, “인물들의 의식에 따라서 그 색체가 다르게 변화하는 것”이다(Kumar 13). 그러므로 “보편적인 언어인 변증법을 좋아하는”(U 15.4726) 스티븐과 마찬가지로 언어의 변증법적 변형을 선호하는 조이스에게 있어서, 항상 변화하는 물의 이미지는 “정착하지 않고 방랑하고 있는 문체들”(Riquelme 133)로 이루어진 『율리시스』의 서술 전략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각기 다른 지류에서 흘러온 물이 강이나 바다에서 합쳐질 때, 각각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강이나 바다라는 보다 큰 범주 속에서 공통적 특징을 공유하는 물의 모습처럼, 각기 다른 서술방식들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복합적인 효과는 조이스의 서술 전략의 다층성과 복잡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서술 전략은 등장인물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시각을 드러낼 수 있으며, 그 사회를 정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동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한 사회 속에는 다양한 담론들과 이데올로기들이 존재하며, 특히 지배 권력의 이데올로기를 담보하는 지배담론들은 그 힘과 권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시도한다. 한편으로 그러한 주류 지배담론에 맞서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려는 반대 담론들 역시 끊임없이 등장하며, 조이스의 서술 전략은 주류 담론과 반대 담론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투쟁의 과정들을 날카롭게 포착한다. 이 과정에서 서사시의 대명사인 『오디세이』(*The Odyssey*)는 『율리시스』로 변형되면서, 장구한 세

1) “water”의 빈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텔레마코스」(“Telemachus”)는 16번, 「칼립소」(“Calypso”)는 8번 「하데스」(“Hades”)는 10번, 「사이렌」(“Sirens”)은 7번, 「이타카」(“Ithaca”)에서는 38번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페넬로페」(“Penelope”)에서도 11번이나 등장한다.

월에 걸친 영웅왕의 모험담이 아닌, 보잘것없는 평범한 인물의 하루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들로 채워지며, 그 속에서 전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담보해낸다. 현실적인 삶의 구체성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그 역사적 지속성을 드러내며, 동시에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이 정태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거부하는 『율리시스』의 서술 전략은, 계속해서 흐름 수박에 없는 물의 속성처럼 모든 것을 담아내면서 섞어내고 또 다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또한 이것은 차이를 인정하는 작업이다. 차이를 어느 한쪽으로 동일화시키는 것을 거부하면서, 각기 다른 그 차이들을 양립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율리시스』에서 물의 다양한 특성을 이용하여, 당대 주류 보수담론들을 전복시키는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조이스는 아일랜드에 대한 영국에 정치적, 문화적 제국주의 지배의 측면뿐만 아니라, 카톨릭이라는 종교가 개인의 자유로운 정신을 억압하는 측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카톨릭의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서사 방식이 바로 「이타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소한 것에서 심오한 것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범위”(Doody and Morris 234)를 범주화시키고자 시도하는 교리문답의 서사방식이며, 이것은 물의 유동성과는 가장 거리가 먼 정태적인 닫힌 구조를 드러낸다. 교리문답은 또한 권위와 권력을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자에게 일방적으로 질문하고 그 답을 강요하는 방식이며, 엔다 더피(Enda Duffy)에 따르면, “식민통치가 가하는 거대한 감시 체계와 경찰의 심문”(181)의 방식과 교리문답 방식은 유사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교리문답과는 정반대로 물의 유동성을 최대한 드러내는 유려한 내적 독백을 보여주는 「페넬로페」를 「이타카」바로 다음에 배치함으로써, “극단적인 객관성을 드러내는 「이타카」와 극단적인 주관성을 드러내는 「페넬로페」”(Wales 90)를 대조시킨다. 뿐만 아니라, 음악적 형식을 차용하여 그 유동성과 가변성을 강조하는 「사이렌」역시 “정확하게 질서 잡히고, 구조화되어 있는 측정 가능한 세계”(Writes 56)를 보여주는 「이타카」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본 논문에서는 물의 이미지를 그 분석의 틀로 사용하여, 「이타카」의 정태적인 교리문답 방식과, 물리 불륨의 유동적인 서사로 구성된 「페넬로페」, 그리고 음악 형식을 토대로 하고 있는 「사이렌」의 서술 방식사이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율리시스』가 포섭하고 있는 당대의 억압적인 보수 담론들과 그 반대 담론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변증법적 갈등의 양상을 다각도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I. 물의 특징과 교리문답 방식의 대조: 「이타카」²⁾

『울리시스』에서 억압적 주류 담론을 드러내는 서술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이타카」를 구성하고 있으며 종교적인 권위를 “차갑게 백과사전적으로 드러내는”(Hayman 160) 교리 문답적 서사 방식이다. 교리 문답은 질문과 대답이라는 정해진 틀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미 고정되어져 있는 종교적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종교의 한계 밖의 그 어떤 내용도 수용할 수 없는 닫힌 담론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사물이나 대상을 고정적인 시선으로 보거나 단일한 의미로 정태화시키는 것을 거부하는 조이스의 변증법적 서사 전략은 이 교리문답의 방식에 대해서도 하나의 의미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다각도에서 이것을 활용하면서 이 방식의 장점과 한계점을 동시에 드러내는 작업을 진행한다.

교리문답 방식이 갖는 긍정성은 “질문과 대답”이라는 명증성과 단순성을 기반으로 해서 정보의 명확한 공유, 그리고 질문자와 대답하는 자 사이에서 지속적으 이루어지는 학습이라는 긍정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조이스는 이 에피소드 이전까지는 아일랜드 사회에서 유대인이라는 소외된 위치 때문에 그 어떤 공적인 공간에서도 자신의 지식의 깊이를 드러낼 수 없었던 블룸에게, 이 교리문답을 통해서 광대한 천문학, 지리학, 자연 과학에 대한 지식을 내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블룸은 스티븐을 뛰어넘는 박학다식한 면모를 효과적으로 과시한다.

물을 사랑하는 자이며, 물을 끌어 오는자, 그리고 물을 나르는 자인 블룸은 취사용 레인지로 돌아가면서 물의 어떤 측면을 경배하는가?

물의 보편성: 물의 민주적인 평등성과 자신의 수평면을 유지하려는 천성에 대한 **항상성**. . . 그것의 **광대함**. . . . 그것의 측정할 수 없는 깊이. . . 해안의 모든 지점을 차례로 도달하는 파도와 물의 표면 입자들의 쉬지 않는 **활동성**: 물을 구성하는 부분들의 **독립성**: 바닷물의 상태였을 때의 **가변성**: 평온할 때

2) 「이타카」 에피소드는 『울리시스』 전체 텍스트(Vintage 판본 기준 총 644쪽)에서 「키르케」(총 251쪽)다음으로, 두 번째로 긴 에피소드(총 64쪽)로서 그 비중이 높으며, 총 309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이 드러내는 유체정역학적 본질: 조수가 일 때의 **유체 동학적 팽창**: 황폐화 시킨 이후에 보여주는 **진정성**. . . 가장 귀중한 수십 억 톤의 금속을 포함해서 **모든 용해 가능한 물질들을 용해시키고 용액 속에 저장하는 능력**. . . 반도와 섬에 대한 완만한 **침식성**, 동질의 반도와 섬과 침강상태의 곳을 영구적으로 형성시키는 힘. . . 물의 무게와 부피와 밀도. . . 무더운 지역과 온대지역 그리고 혹한 지역에서의 색의 점층적 변화. . . 해저지진이나 호우, 피압지하수 우물, **분출, 급류, 회오리바람, 홍수, 큰 소나기, 폭풍, 분수령, 분수계, 간혈온천, 소용돌이, 화방수, 격류, 범람, 대홍수, 역수에서의 물의 격렬함**. . .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로 구성된 그것의 구성에 있어서의 **단순성**: 물의 치유적 덕성: 사해에서의 물의 부력. . . 정화시키는 특성, 갈증과 불을 끄는 힘, 식물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힘. . . 모범으로서의 무오류성: 증기, 안개, 구름, 비, 진눈개비, 눈, 우박으로서의 물의 **변형성**. . . 빙하, 빙산, 부빙으로서의 견고성. . . 인간의 몸의 **90%**를 구성하는 **물의 편재성**. (U 17.185-228, 필자강조)

블룸이 물에 대해서 찬미하는 내용을 묘사하는 이 장면은 물에 대한 그의 포괄적인 지식의 내용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물이 가진 다양한 속성들을 폭넓게 제시한다. 블룸은 물의 속성과 특징에 대해 다각도에서 살펴보고 있으며, 어떤 단일한 속성으로 물을 고정화시키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백과사전적인 나열 방식으로 구성된 이 장면은, 블룸의 지식의 폭과 깊이를 드러내면서 또한 물이 가진 다양하고 다층적인 속성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다. 그리고 교리 문답 방식은 여기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여기에서 설명되고 있는 물의 다양한 특성들은 조이스의 서술 전략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물의 “보편성”과 “평등성”과 “단순성”은 『율리시스』의 주제적 측면과 연관된다. 어떤 사회의 특정한 사람들의 특권적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속에서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율리시스』와 물의 보편성과 평등성과 단순성은 절묘하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몸의 대부분(90%)을 차지하는 물과 같이, 아일랜드 사회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단순하고 평범한 인물들, 즉,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에 등장하는 에블린(Eveline), 시니코 부인(Mrs. Sinico), 찬들러(Chandler)과 같은 인물들이 『율리시스』 중심 인물인 블룸과 별단 다르지 않는 것이다. 블룸이 “보편인이자 아무것도 아닌 인간(Everyman or Noman)”(U 17.2008)인 이유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 없는 인간(Noman)”이기 때문에, 즉 아일랜드

사회에서 인종적 차이와 낮은 사회적 지위, 그리고 다른 종교 때문에 소외되어 있으며, 외적 발언권을 거의 갖고 있지 못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대다수 사람들을 대표하는 “보편인 Everyman”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특정한 영웅이 주인공이 되는 서사시의 시대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시대인 것이며, 이것은 물이 지닌 보편성의 특징과 잘 부합한다.

둘째로, 민주주의적이며 평등하고 보편적인 물의 특성은 또한 상반된 제 특징으로 발전된다. 물이 폭풍이나 홍수의 형태일 때는 엄청난 파괴력을 드러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호수나 시내물의 형태일 때는 평온하기 그지없다. 물은 섬들을 침식하는 파괴력과 동시에 새로운 섬들을 만들어 내는 생성의 힘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여기서 파괴력은 기존의 늪은 틈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며, 이러한 건설적 파괴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것이 생성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물은 이러한 속성은 변화와 발전을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물은 흐르는 강물일 때는 유동적이지만, 빙하나 빙벽일 때는 경화적 특성을 갖는다. 갈증을 해결하는 힘을 가지면서 동시에 물과는 정반대의 특징을 드러내는 불을 진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물인 것이다. 이러한 양가성 역시 조이스의 가치관과 그러한 가치관이 반영된 서술 전략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사회와 인간, 그리고 모든 사물들을 하나의 단일한 특성 안에 가둘 수 없으며, 이 모든 것들은 항상 이면적인 특징을 동시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서술이나 서사 역시 이러한 양가성을 포착하고 드러내야만 하는 것이다. 『율리시스』가 보여주는 서술 전략은 바로 이러한 측면을 날카롭게 제시한다. 교리문답으로 이루어진 「이타카」 역시, 명증적 의미의 전달이라는 장점과 함께 질문과 대답이라는 정해진 틀 안에서 인간 사유를 제한하는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타카」라는 경직되고 닫힌 구조의 에피소드 바로 다음에 이와는 정반대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서술방식을 가진 「페넬로페」를 배치함으로써 그 대조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중요한 물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용해성과 수용성이다. 물은 금속이나 수많은 무기질을 녹여서 자신 안에 간직할 수 있다. 특히 바다의 형태일 때는 그 크기와 부피에 있어서 그 안에 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그야말로 한계가 없을 정도로 무한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이스가 생각하는 서술은 인간사회의 폭넓은 범위의 다양한 측면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율리시스』는 바로 그러한 측면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율리시스』는 호머의 『오디세이』를 큰 틀로서 들여올 뿐만 아니라, 단테의 『신곡』,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용해시키고 있으며, 자신의 시대의 대중가요까지를 수용한다.³⁾ 또한 총 18개의 에피소드들이 각기 다른 서술 스타일을 활용하는 것을 통해, 호머 이래로 사용되어왔던 거의 모든 서술 방식과 문체를 그야말로 하나의 텍스트 안에 “녹여 내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물의 특징은 바로 가변성과 유동성이다. 물은 이슬일 수도 있고, 수증기일 수도 있지만, 거대한 바다일 일수도 있다. 폭풍우일도 수도 있고, 눈이 될 수도 있으며, 무색무취의 액체일 수도 있다. 물은 또한 어떤 용기에 담기느냐에 따라 그 형태 역시 무한히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물의 변형성과 유동성이야말로 조이스가 생각하는 서술 전략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서술의 고정성, 더 나아가서 의미의 고정성에 대한 거부라는 측면과 물의 변형성과 유동성은 너무나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의미는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처럼 한 자리에 고정 될 수 없다. 서술 역시 마찬가지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공간에 따라서 서술의 의미 역시 변한다. 그리고 물을 담는 용기의 모양에 따라서 물의 모양이 변형되는 것처럼, 서술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서술의 의미 역시 변한다. 즉, 시티즌(Citizen)이나 디시(Deasy) 교장의 반유대주의적 진술이나 편협한 아일랜드 국수주의적 진술은 유대인인 블룸이나 세계주의자인 스티븐의 진술 속에서 그 의미의 전복이 일어나며, 또한 텍스트의 전반부에 있었던 블룸의 가부장적 언술은 마지막 화자인 몰리의 내적 독백을 통해 그 의미의 전환이 일어난다.

이제 다시 교리문답 방식이 가지는 의미 전달의 간결성과 명확성의 문제로 돌아와 보면, 이 방식은 단순성, 간결성, 논리성, 명증성을 질문과 답변이라는 확고 부동한 틀을 통해서 물의 가지는 제 속성들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장점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즉, 이 질문과 답이라는 기본적인 고 단순한 형식은 명확한 답변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가 가지는 논리성과 명확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질문자와 답변자사이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양자의 경험의 공유와 확대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렇게 교리문답의 형식은 블룸의 방대한 지식과 세상에 대한 그의 통찰력을 드러내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 상당부분은 “키르케”에서 자신을 개혁가로서 변모시켰던 블룸의 과학적 지식을 드러내

3) 특히 ‘Shakespeare’와 ‘Hamlet’라는 단어는 『율리시스』에서 각각 50번 이상 등장할 정도로 빈번하게 사용된다.

는 세세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블룸은 집 밖에서는 자신의 이름조차도 제대로 부고 난에 제대로 기입되지 못하는 소외된 존재이지만, 자신의 집 안에서는 과학, 지리학, 약학, 역사 음악, 천문학, 지형학 등등 있어서 박식함을 자랑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블룸의 유식함과 드러내기에 교리문답 방식은 대단히 효율적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교리문답이라는 형식은 다양성과 역동성, 유동성, 그리고 변형성을 가진 물과는 정반대적인 속성, 즉 정체성과 고정성을 가지고 있다. 정체되지 않고 항상 유동하고 변화하는 물과는 정반대로 “질문과 답변”이라는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교리문답의 방식은 서술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지속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교리문답방식은 “제도권 언어가 갖는 권위의 허구성과 그것이 주입하려는 경직된 질서”(김문숙 125)를 잘 드러낸다. 조이스는 더 나아가 확보부동한 단일한 진리만을 고정화시키는 종교적인 권위의 발현체로서의 교리문답의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도한다. 즉, “교의와 신앙의 가면을 이용하여 그 질서와 권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드러내는”(Lawrence, *The Odyssey* 196)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교리문답은 “신의 섭리의 정당화”라는 기본 틀이 질문자의 의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며, 교리문답의 방식은 질문 자체가 답을 미리 설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새로운 의미나 새로운 시각을 기대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질문이 객관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답을 주는 자가 질문의 작성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질문과 대답사이의 관련성이 긴밀한 것이 아니라, “임의적”(Lawrence, “Style” 566)이라면, 이러한 형식을 통해서 “사실”에 대한 정보나 혹은 “진실”을 얻는다는 기대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다.

교리 문답의 개별적인 질문들과 대답들은 사실들로 이루어진 세상을 유사성, 가설, 인과성과 기타 등등의 것들로 질서화 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을 제공한다. 사실들은 범주로 구분되고 범주들이 흩어지면, 새로운 범주들이 형성된다. . . 조이스는 진실에 도달하고자하는 인간의 소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놀고 있다. . . “이타카”에서 그 주제는 원래 어떤 것을 결론을 내거나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사를 위해서 사용되었다. . . 과학, 논리, 수학, 신학, 문학 적 비평들이 모두 패러디 안에서 암시되어진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지식에 질서를 부여하고 포함하는 모든 체계이기 때문이다. (Lawrence, “Style” 568-69)

교리문답은 종교적 권위를 빌려 오고 질문과 답변이라는 분명한 형식을 통해서, “사실”을 전달하고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지만, 사실은 이러한 특정한 방식 역시 절대적으로 그 옳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특정한 시각에서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하나의 방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결국 종교담론은 과학 담론과 마찬가지로 그 어떤 확고부동한 진실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이타카」는 교리문답 방식에 대한 패러디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과학 담론이나 종교적 담론의 “객관적 신뢰성에 대한 환상”(McCarthy 616)은 「이타카」에서 여지없이 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장면은 이러한 측면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함께?

뱃사공 신바드 그리고 재단사 틴바드 그리고 간수 진바드 그리고 고래잡이 윈바드 그리고 못치는 이 닌바드 그리고 실패자 핀바드 그리고 물퍼내는 이 빈바드 그리고 물통 만드는 이 핀바드 그리고 우편배달부 민바드 그리고 호출계 헌바드 그리고 비웃는 이 린바드 . . .

언제?

킴킴한 침대로 가자 백주(白晝)의 사나이 다킨바드의 로크 새(鳥)와 닭은 모든 바다오리의 밤의 침대 속의 뱃사공 신바드의 로크 새를 닭은 바다오리의 네모난 둥근 알이 한 개 놓여 있었다. (김종건 1212-13)

위에서 보는 것처럼 질문과 이에 대한 대답이 마치 “동문서답”처럼 전혀 조용하지 못하는 양상이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대답 부분은 끝없는 말장난을 계속함으로써 대화 자체의 단절을 가져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확실한 대답을 기대하거나, 분명한 사실을 인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타카」가 겉으로 표방했던 명증성에 대한 환상은 여지없이 깨지고 만다. 즉, 「이타카」에서는 “과학적 방식”이라는 객관적 기법을 채택하여 일련의 가설을 제시하지만 “그 가설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된 결론의 잔해”(Chinitz 432)만을 남길 뿐이다. 「이타카」에서는 이렇게 “질문과 대답 사이의 간극이 반복적으로”(Wright 59) 나타난다. 이타카의 “구조는 반복적으로 어떠한 질문이라도 거기에 대한 대답이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동시에 그러한 기대를 깨는”(Wright 59) 형식을 보여준다. 조이스는 교리문답에 대한 일종의 패러디를

통해서 “혼돈, 우연성, 무한, 그리고 측량과 예측을 초월하는 다른 개념들이 긍정성을 가질 수 있음”(Eddins 804)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이타카」의 중심적인 아이러니는 스타일 자체가 모든 것이 정확하게 묘사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만, 다양한 실수들을”(McCarthy 612)을 동시에 드러냄으로써, 세상과 인간에 대한 이해의 과정에서 교리문답 방식이 표방하고 있는 확실한 답변의 제시라는 명제는 그 자체로 이미 모순과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타카」는 그 에피소드 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물의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교리문답 방식에 대한 패러디를 통해서, 교리문답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종교적 권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모든 권위주의적 담론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II. 물의 이미지를 반영하는 서술 방식으로 구성된 「사이렌」과 「페넬로페」

이번 절에서는 교리문답 방식과 대조적인 서술 방식을 택하고 있는 「페넬로페」와 「사이렌」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타카」와의 대조적인 측면들을 살펴 볼 것이다.

우선, 논리적인 흐름이나 마침표등의 문장부호 사용을 거부하고, 물리의 내면 의식의 임의적인 흐름을 쫓아가고 있는 「페넬로페」는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는 「이타카」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페넬로페」에서 “물리는 가장 느슨하게 최적으로 흐르고 있는 언어를 대표하며”(Gottfried 35) 이처럼 그녀의 언어는 전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간다. 또한 「페넬로페」는 순환적인 구성을 통해서 “단함”을 거부하는데, 이러한 측면 역시 “순환적” 물의 속성과 유사하다.

한편으로 “갈피를 못 잡게 하고, 혼란시키며, 유혹하는 사이렌의 목소리로 이루어진 불협화음적 소음으로 시작되는”(Stainer 326) 「사이렌」은 「페넬로페」와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즉, 어떠한 의미적 연결고리 없이 “아무렇게나 변하는 것”(Adams 612)의 파편적인 나열이라는 점에서, 「이타카」와의 대립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전혀 연결점이 없는 「사이렌」의 초반의 묘사들은,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이라는 확고부동한 틀을 가지고 있는 「이타카」와 정반대로 “일관성이 없는 일련의 파

편들”(Kumar 19)의 전형성을 보여준다. 물론 음악의 서곡이라는 틀을 도입하거나 혹은 모든 것을 조망하고 있는 한 인물의 의식구조를 대입하면, 분명한 연결고리를 확보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점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마치 무정형의 물의 속성과 유사한 측면을 드러낸다. 또한 음악 역시 정지하지 않고 흐름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물의 유동적 속성과 가장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이렌』에서 클래식 음악만이 아니라, 대중들의 음악인 아일랜드 속요를 많이 삽입하고 있는 것은 물이 가지는 보편성과 편재성, 평등성까지도 상통하는 지점을 형성한다.

앞서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이 가지는 다양한 특징들은 교리문답의 폐쇄성과 정태적인 측면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측면과 관련하여 『페넬로페』에서 드러나는 몰리 블룸의 내적 독백의 유장한 흐름은 “강, 시냇물, 액체 등의 은유”(Attridge 94)와 연결된다. 또한 몰리 블룸의 내적 독백이 힘 있게 전개되는 이유는 바로 그녀의 의식의 흐름을 제어하는 외부적 권위로부터 자유롭게 때문이다. 즉, ‘질문과 답’이라는 외부로부터의 정해진 하나의 틀이 제거된 상태, 이것을 확대시켜보면 모든 종류의 틀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물이 흐르듯이 그녀의 생각이 자유롭게 흘러나가는 것을 보장해준다. 물이 어떤 틀에 억매여 있지 않은 것처럼, 몰리는 한 남자의 아내라는 틀이나, 중년이라는 나이의 틀, 여자라는 틀 등등 그녀의 외부에서 기인하는 권위적인 모든 틀들(억압들)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자신을 풀어헤쳐내고 있는 것이다. 즉, 그녀의 “담론은 유동하며 여성적이며,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며, 로고스 중심적인 권위의 한계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는 것이다”(Henke 52). 몰리는 자신의 내면 의식 속에서 자유롭게 생각을 변형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변형은 『올리시스』의 중심 모티브이기도 한 것이다. 또한 모든 것을 녹이는 물의 용해성 역시 중요한 함축적인 의미를 지닌다. 몰리 블룸의 의식 속에 들어오는 기존의 남성 우월주의적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들을 다 녹이면서 자신의 입장에서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맛아 내 생각에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그걸 빨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더 단단해진 것 같아 그는 나를 갈증 나게 했어 그는 그것을 티티즈라 부르지 나는 웃어야만 했지 그래 여하튼 이쪽 것은 조금만 그렇게 하면 이내 젓꼭지가 굳어 버려 나는 언제나 그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해야지. . . 똑같은 것이 두 개나 달려서 박물관에 있는 조각상들처럼 미를 나타내도록 되어 있지 그들 중의 한

명은 손으로 그것을 가리는 척을 하고 있기도 해 물론 그것들은 아름답지 가득 차 있는 두 개의 주머니를 달고 있어서 다른 것이 앞으로 숙여져 매달려 있거나 모자걸이처럼 불룩 솟아 있는 남자들의 모습에 비해서는 말이야. 남자들의 조각상들이 양배추 잎사귀로 그것들을 가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 . . 하코트 거리의 정류장 근처 신사용 화장실을 지나갈 때 언제나 남자들은 자신들의 물건을 내보이려고 안달을 하는 꼴이구나 어느 놈이든 내 시선을 끌려고 안간힘을 쓴단 말이야 마치 그것이 세계의 제 7대 불가사의라도 되는 양 말이야 그 더러운 곳에서 나는 코를 찌르는 냄새는 또 어쩔고! . . . 여성들은 물론 아름답지 그것은 인정된 사실이지 불륜은 내가 홀레스가에 있는 어떤 부자를 위해서 나체 모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지 그 때 그는 헬리 상점에서 실직한 상태였고 나는 옷을 팔거나 커피가게에서 피아노를 치곤했었지. . . 펜 로즈가 목욕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창문을 통해서 거의 볼뻔 했지 뭐야 나는 수건으로 얼른 얼굴을 가렸지만 그 녀석은 공부를 한 셈이지 . . . 그나 아니면 그 누군가라도 여기에 있어서 내 자신을 같이 즐길 수 있다면 좋으려만 내 몸 안에서 불길을 느끼고 싶어 그가 손가락으로 내 엉덩이를 만지면서 그이와 보낸 두 번째 즐거운 시절에 대한 꿈을 다시 꾸다만 좋을 텐데 나는 그 때 5분 간이나 그를 내 다리 사이에 넣고 그를 놓아주지 않았어 이후에 나는 그를 끌어 안았어 . . . 나는 양 입술 사이로 내 혀를 그에게 내밀었지 야수 같으니 목요일 금요일 하루 토요일 이를 일요일 사흘 맑소사 월요일까지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 (U 18.535-95)⁴⁾

위 인용문에서 보는 것처럼, 물리의 내면 의식은 쉽표나 마침표 없이 계속해서 흐르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녀는 가부장적 도덕성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외간 남자인 보일런(Boylan)과의 성적 경험이나 자신의 성적 욕망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신의 생각을 여과 없이 털어놓는다. 더 나아가 남성들의 헛된 권위의식을 신랄하게 꼬집고 풍자한다. 특히, 성기를 과시하고 싶어 하는 남성들을 “마치 7대 불가사의라도 되는 것처럼”이라고 풍자하는 구절을 통해 그녀는 남성들을 그녀의 발 아래로 끌어내린다. 물리는 여성인 자신의 입장에서 남편을 비롯한 외부세계에 대한 자신의 목소리를 막힘없이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외간 남자인 보일런과의 다음번 약속까지의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진다는 아쉬움을 표출하는 그녀의 의식 속에는 불륜에 대한 죄책감 같은 가부장주의 사회의 도덕적 규범은 전혀 들어와 있지 않다.

4) 말줄임표는 원래의 텍스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필자의 것임.

한편으로 물이 보여주는 생명력의 잉태라는 부분 역시 여성의 생명 생산능력 과도 연관된다. 즉, 앞서서 교리문답의 패턴 안에서 불륨이 물의 다양한 속성을 외부에서 규정하고 역할을 담당했다면, 몰리는 바로 그 물이 가지는 속성을 그대로 재현하는 서술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물이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근원인 것처럼, 여성의 잉태 능력은 여성의 “창조행위로서 자신의 성적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것”(Eide 390)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물학적인 잉태 능력은 바로 몰리의 서술의 생산적인 힘으로 확대될 수 있다. 즉, 그녀가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풀어나가는 자신에 대한 서술들은 「이타카」에서 보이는 교리문답의 단절성과 단속성과 강력한 대조를 보이면서, 그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고 있다. 그녀는 전혀 힘들이지 않고서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토해 내듯이 혹은 누에가 실을 잣듯이, 페넬로페가 옷감을 짜듯이 중단 없이 생산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막힘과 억압을 배제한 몰리의 내적 독백의 방식이 거침없이 흘러가는 물의 이미지와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물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한 개체로서의 몰리 역시 다양한 측면을 지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몰리의 내면 독백은 다양하게 펼쳐질 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물이 비물질적인 실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듯이, 몰리 역시 인간이라는 몸이라는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연관지어 볼 때, 몰리의 몸 역시 그녀의 의식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녀 역시 남성인 불륨과 마찬가지로 먹고 배설한다. 또한 성적인 욕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생리적인 현상이나 성적인 욕망에 관해서 몰리가 억압을 배제하고 자유롭게 표출하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적나라하고 투명하게 드러내는 몰리의 내적 독백은 물의 투명성과 연관된다. 스티븐이 철학적 사유나 문학적 텍스트들에 의존해서 자신의 생각을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드러낸다면, 몰리의 내적독백은 보다 직접적인 말하기의 방식이다. 이렇게 속 시원하고 적나라하게 자신의 속내를 풀어내는 오는 해방감이 그녀의 독백에서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방귀가 마려우면 꾸면 되는 것이다(U 18. 909). 스티븐의 내적 고뇌에 찬 갑갑한 의식이나, 온갖 박학다식한 생각들로 꽉 차 있는 불륨의 내면 의식에 비해서, 몰리 불륨의 내면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물의 투명성을 통해 가식이나 겉치레에

서 벗어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바를 거리낌 없이 풀어헤쳐 놓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스티븐의 철학적, 문학적 사유가 의미가 없다거나, 불륨의 수학적 지식이 나 과학적 지식, 그리고 그의 총체적이고 유토피아적인 사회적 비전이 전혀 무의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두 남성 인물들의 내면 의식이 너무나 복잡하고 외부적인 억압의 틀 속에 갇혀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비해서, 몰리는 오직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만 집중함으로써 보다 더 자유롭게 명쾌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멈추지 않고 흐르는 속성을 가진 물은 또한 「사이렌」의 중심 모티프인 음악으로 묶여지는 지점이 된다.

청동 빛 머리카락이 금빛 머리카락 곁에 쇠 말굽이 링링 강철 울리는 소리들,
들었다.

주제넘너너 넘너너.

손톱 조각, 단단한 엄지 손가락으로부터 손톱 조각을 잡아떼며, 손톱 조각.

지독해! 그리고 금빛 머리 카락이 한층 얼굴을 붉혔다.

한가닥 허스키 퉁소 곡이 불었다.

불었다. 푸른 꽃이 피어 있다.

금빛 뾰족탑 같은 머리카락.

공단에 쌓인 공단 같은 앞가슴 위의 한송이 장미, 카스틸의 장미

진음(震音)으로 노래하며, 진음으로: 아이돌로레스.

...

참된 남자들. 리드 켈 라우 데 그리고 돌, 그래, 그래. 여러분과 같은 칭키 칭키
잔을 들어요.

프프! 오오!

가까이에서 청동 빛 머리카락 어디? 멀리에서부터 금빛 머리카락 어디? 말굽
은 어디?

르르르르. 크라아. 크라안드으르.

그때 그때 가서야. 나의 비명(碑名). 씩여지게 하라.

끝나도다.

시작! (김종전 489)

「사이렌」의 도입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음악의 서곡형식을 이용하여 이 에 피소드를 구성하고 있는 문단들의 첫 단어를 모아 “시간 순서적으로” 차례차례 “병렬시켜 놓고 있다”(Hayman 160). 이 부분은 단어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지만,

의미의 연결 관계가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앞 절에서 살펴본 교리 문답 형식에 의한 「이타카」에피소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논리적 명확성이 제거되어 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무의미한 단어들이 나열 되어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타카」의 교리문답 방식의 질문과 답변이 서로 조응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이 방식이 지니는 허위성을 드러낸 것과는 정반대로, 여기서의 의미의 연결 관계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서곡”이라는 내재된 형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마치 투명한 물이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용해되어 있는 물질에 따라 소금물과 설탕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의미가 파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용된 부분이 다시 반복되면서 각각의 문단속에서 각각의 의미를 확보하게 되는 반전을 갖고 있다. 즉,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사이렌」은 그 새로운 형식을 통해서 강하게 드러낸다. 즉, 「이타카」의 교리 문답이 겉으로는 질문과 답변이라는 외적 형식을 통해서 의미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가정하지만, 실제로는 질문과 대답 사이에 불일치를 들어냄으로써 그 한계성을 드러낸다면, 「사이렌」은 겉으로는 의미가 해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적 구조에 의해서 의미를 확보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더 나아가, 『울리시스』에서 조이스가 활용하고 있는 음악의 특징은 명확한 질서를 갖추고 있는 “화음”뿐만 아니라, 불협화음까지를 포함한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바다, 바람, 나뭇잎들, 천둥, 파도, 소의 울음소리, 우시장, 수탉, 암탉들은 울지 않지. 뱀들은 쉬익소리를 내지. 사방에 음악이 있어. (U 11.963-65)

우리 몸의 90%를 차지하고 세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과 마찬가지로 조이스가 생각하는 음악은 특별한 계층만을 특별한 음악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든 사물들이 내는 소리들이 다 음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가사 없는 노래”(U 11.1092)가 될 수 있는 것이며, “공기 중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악”(U 11.1182)인 것이다. 즉, 음악은 형태가 고정되는 않는 물과 마찬가지로, 그 어떤 규칙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그 어디에서나 “소리”를 낼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부분은 「사이렌」의 마지막 부분으로, ‘tap’이나 ‘tschink’ ‘prrrr’와 같은 의성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노래 구절을 삽입함으로써 “이타카”에서 표면적으로 강조했던 명증성과는 정반대의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칭크. 칭크.

팀. 거들떠보지 않는 한 풋내기 청년이 문간에 섰다. 그는 청동 빛 머리카락을 보지 않았다. 그는 금빛 머리카락을 보지 않았다. 밴도 보브도 톰도 사이도 조이도 큰 유리잔의 신사들도 리치도 패트도 보지 않았다. 히히히히. 그는 보지 않았다.

그르르블룸(꽃). 징그르맞은 블룸이 최후의 낱말을 쳐다보았다. 조용히. “나의 조국이 그의 지위를 확보할 때.”

프르프르.

틀림없이 버전(디) 때문이야.

프흐. 오오. 프르프르.

“지상(地上)의 민족들.” 뒤에서는 아무도 없군. 그녀는 지나갔다. “그때에 그런데 그때 가서야.” 전차 크란크 크란 크란. 좋은 기회. 들어오고 있다. 크란들크란크란. 확실히 버전(디) 때문이다. 그래. 하나, 둘, “나의 비명(碑名)을.” 카리아아아아. “쓰여지게 하라. 나는.”

프르프흐르프흐흐.

“끝났도다.” (김종건 541)

위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사이렌」은 언어가 가지는 인위적인 체계성을 거부하고 그러한 닫힌 구조를 뛰어넘는 소통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Hee hee hee hee”라는 구절이나 “When my country takes her place among” 라는 노래 구절은 그 자체로는 파편성을 드러내지만, 두 구절 모두 모두 독자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거나 그 노래 구절을 알고 있다면 양자 간에 소통은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외면적으로는 의미의 파편화를 보여주지만, 다른 층위에서 다른 규칙들에 의해서는 소통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완벽한 소통을 지향하나, 반대로 전혀 그 어떤 것도 확실하게 말해 줄 수 없는 「이타카」의 교리문답과는 정반대의 측면을 드러낸다. 또한 의성어를 많이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하는 것은 음악의 기본이 되는 매개체가 ‘소리’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동시에 ‘문자언어’라는 정태적인 닫힌 구조를 소유하고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사이에 놓인 경계선을 허무는 역할은 한다. 즉, “Fff! Oo. Rrpr.”와 같은 의성어들은 그러한 소

리를 들어본 경험을 공유한다면, 이들 사이에 소통의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이렌」은, “음악적 언어의 감각적 특성을 지배적”(Allen 445)으로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이타카」가 가지는 정태적 폐쇄성을 해체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구별 짓고 경계선을 만들어내는 이타카의 방식과는 정반대로 “공통적인 정서적 주제”인 음악 안에서 “노래하는 자와 인물들과, 노래를 듣는 자를 정서적으로 서로 섞이게”(Smith 414)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III. 결론: 물의 이미지를 이용한 변증법적 서술 전략의 의미

앞서서 분석한 것처럼, 『율리시스』는 종교적 권위와 사회적 위계질서를 반영하는 교리문답이라는 종교적, 이성적, 논리적 서사 방식을 텍스트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 담론이 갖고 있는 다양한 측면들을 심도 깊게 드러내고, 또한 그 담론 방식과는 정반대의 서술 방식들을 동원하여 그것을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지배담론을 또 다른 절대적인 지배담론으로 대체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작업이다. 보편성과 항상성, 가변성과 격렬성 그리고 편재성과 변형성을 가진 물이 고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그 어떠한 담론도 그 자체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고정할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물과 마찬가지로 모든 서사들과 담론들은 자신을 변형시키면서 변화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존의 모든 서술 방식들을 수용하면서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형태와 방식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조이스의 서술 전략이 가지는 역동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리문답의 방식을 채택한 것은 “지식을 포함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체계인 과학과 논리학, 수학, 신학”을 끌고 들어와 이를 “패러디”하는 작업을 통해 “질서와 권위에 대한 급진적인 회의주의를 드러내기 위한”(Lawrence 1981, 195-6) 것이다. 조이스의 서술전략의 특징은 양가적인 특징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물의 이미지와 잘 부합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교리 문답이라는 권위적 서사 형식 속에, 면도를 하기 위해서 물을 끊이는 내용이나 밤에 면도하는 것에 대한 장점(U 17.275-87) 혹은 그날의 지출 수입 명세서(U 17.1455-79) 등과 같은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심지어는 방

노하는 장면(U 17.1187)을 삽입함으로써 종교적 도그마에 토대를 두고 있는 절대적인 권위를 희화적으로 해체한다. 이처럼 기존의 서술 방식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면서, 보이지 않게 작동하고 있는 기존의 위계질서-계급적인 것이든, 정치권력의 문제이든 담론 권력이든, 종교적 권력이든, 확보부동하게 경화되려고 시도하는 모든 것들-를 흔들고 해체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율리시스』의 핵심적인 서사 전략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무런 정치적 권력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으며, 경제적인 특권도 없는 블룸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대한 묘사나, 지식 담론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논리 정연하게 언어를 나열하고 정돈할 능력도 없지만 자신의 내면의 생각들을 흘러가는 물처럼 풀어내고 있는 물리 블룸의 내적 독백은, 종교적인 담론과 같은 권위적인 담론들을 전복시키면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평범하고 소외된 계층들의 서사가 기존 담론의 가장 상층에 위치하는 담론들을 대체하면서 그것들의 위계질서를 해체하고 전복시키는 것이다.

(한국외대)

인용문헌

- 김문숙. 「『페넬로피』: 여성 섹슈얼리티의 탈식민주의적 재현」. 『제임스 조이스 저널』 9.2 (2003): 123-40.
- 김종건. 『율리시스』. 서울: 생각의 나무, 2007.
- Adams, Hazard. “Critical Constitution of The Literary Text: The Example of *Ulysses*.” *New Literary History* 17.3 (1986): 595-616.
- Allen, Stuart. “Music, Language, and Thought in ‘Siren.’”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53.4 (2007): 442-59.
- Attridge, Derek. *Joyce Effects On Language, Theory and History*. Cambridge UP, 2000.
- Chinitz, David. “All the Dishevelled Wandering Stars: Astronomical Symbolism in ‘Ithaca.’”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37.4 (1991): 432-41.
- Doody, Terrence & Morris, Wesley. “Language and Value, Freedom and the Family in ‘Ulysses.’” *Novel: A Forum on Fiction* 15.3 (1982): 224-39.
- Duffy, Enda. *Subaltern “Ulysses.”* Minneapolis: Minnesota UP, 1994.
- Eddins, Dwight. *The Search for Logos*. *ELH* 47.4 (1980): 809-19.
- Eide, Marian. “The Woman of the Ballyhoura Hills: James Joyce and Politics of Creativity.”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44.4 (1998): 377-93.
- Gottfried, Roy K. *The Art of Joyce’s Syntax in “Ulysses.”* Macmillan Press, 1980.
- Hayman, David. “James Joyce, Paratactician.” *Contemporary Literature* 26.2 (1985): 155-78.
- Henke, Suzette A. “Sepulchrum of Other Molley: A Feminist/Psychoanalytical Inquiry into James Joyce’s Politics of Desire.” *Mosaic* 21.3 (1988): 149-64.
- Joyce, James. *Ulysses*. London: Random House, 1986.
- Kumar, Udaya. *The Joycean labyrinth : repetition, time, and tradition in Ulysses*. Oxford: Oxford UP, 1991.
- Lawrence, Karen. *The Odyssey of Style in Ulysses*. Princeton: Princeton UP, 1981.
- _____. “Style and Narrative in the ‘Ithaca’ Chapter of Joyce’s *Ulysses*.” *ELH* 47.3 (1980): 559-74.

- McCarthy, Patrick A. "Joyce's Unreliable Catchist: Mathematics and the Narration of 'Ithaca'." *ELH* 51.3 (1984): 605-18.
- Parrinder, Patrick. *James Joyce*. Cambridge & New York: Cambridge UP, 1984.
- Riquelme, John Paul. *Teller and Tale in Joyce's Fiction: Oscillating Perspectives*.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83.
- Smith, Mack. "The Structural Rhythm in *Ulysses*: Dominant to Love to Return."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30.4 (1984): 404-19.
- Stainer, Michael. "The Void Awaits Surely All Them That Weave the Wind: 'Penelope' and 'Sirens' in *Ulysses*."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41.3 (1995): 319-31.
- Wright, David G. *Ironies in Ulysses*. Gill and Macmillan, 1991.

AbstractDialect of Subverting the Dominant Discourses by Means of the Image
of Water in *Ulysses*

Young Shim Lee

Ulysses, which uses the different narrative techniques and boasts the wide range of literary styles in order to subsume the various discourses of Joyce's Era, rejects to fix the meaning of the text as single one.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narrative of *Ulysses* correspond to those of water, which are described in detail in "Ithaca". For example, Water has "universality," "democratic equality and constancy," "profundity," "variability," "violence," "simplicity," "metamorphoses" and "ubiquity" (*U* 17. 185-26). Ironically, "catechism" which is the main narrative method of "Ithaca" and conflicts with those various traits of water, because catechism tries to fix meaning of the text within the frame of questions and answers.

Meanwhile, contrary to "Ithaca", "Penelope" shows the flowing narrative similar to fluidity of water, which allows Molly to express her inner thoughts without any disturbance from the patriarchal ideologue. Also "Sirens" which adapts musical pattern as its narrative method reveals the opposite characteristics to those of "Ithaca," for the former shows the hidden connection of meanings by means of "overture" of music, instead of emphasizing clear understanding of the text through the established logics of language on which catechism is based.

In conclusion, the various images and different traits of water are essential for questioning the problematic narrative styles such as catechism. Moreover, they are also vital for understanding the narrative strategy of *Ulysses* which brings the dominant conservative discourses such as Catholic dogma, imperialism, and patriarchal ideologue to dismantle them through the narrative methods which resemble the images of water.

■ **Key words** : catechism, water, subversion, overture, musical pattern
(교리문답, 물, 전복, 서곡, 음악적 형식)

논문접수: 2012년 6월 3일

논문심사: 2012년 6월 12일

게재확정: 2012년 6월 21일